

2011.09.14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OECD, 세계식량시스템에 환경친화적 방식 도입 주장

### 1. WSJ(2011.09.05) 주요 내용

- 지난 5일 파리에서 개최된 전문가컨퍼런스에서 OECD는 현재와 같은 방식 ("business as usual")으로 계속된다면 세계 식량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함.
  - OECD는 이번에 발표된 FAO와의 협동보고서를 통해, 기존에 내세운 2050년 까지 70%의 식량 증산이라는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,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.
  - 환경친화적인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적 방향성이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,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.
- 식품가격 상승은 올해 초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, 전세계 기아 인구가 올해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,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먹여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.
  - 최근의 기후 변화로 전세계 곡창지대인 미국, 인도,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,
  - 국제곡물수요는 향후 40년간 10억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, 그동안의 농식품의 저가격 시대는 끝났다고 언급함.
- OECD는 이번 발표에서 다음의 세가지 원칙을 강조함.
  - 지속가능한 성장 필수, 장기적 환경 비용의 최소화
  - 자원 부족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 가격의 신호(signal) 기능 강화
  - 토지 이용은 자원의 최적 사용을 충족
- 위의 권장된 원칙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으나, 농업·바이오에너지 보조금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, 이러한 원칙을 정책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.